

“하나님의 돌보심, 회복의 시작”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시편 147편 5~9절(구약 p.908)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이 절망이 끝나지 않는 건 아닌지 등의 의심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재건을 명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 시편 147편은,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찬송합니다.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시 147:2~4)
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 ② 상심한 자들을 ()
③ 별들의 ()를 세시고 ④ 그것들을 다 ()대로 부르시는도다
4.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참된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시편 147:11) “여호와는 자기를 () 하는 자들과 그의 ()을 기뻐하시는도다”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욘 16~20장) 욘과 그의 친구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으로, 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친구들의 비난에 반발합니다. 빌닷과 소발은 욘이 악인이기에 고난받고 있다고 보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욘은 하나님의 정의와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입니다.



화요일(욘 21~26장) 욘과 친구들의 논쟁이 이어지며, 욘이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친구들은 여전히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욘은 악인도 잘 살고,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무죄하다.’를 이야기합니다. 빌닷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고, 이것은 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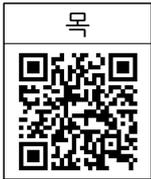


도 마찬가지로.'라고 주장합니다.

수요일(욥 27~30장) 욥의 마지막 장황한 변론의 일부로, 자신이 무죄하다는 주장과 세상에서 악인의 운명, 인간의 지혜, 자신의 고통 등을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욥은 여전히 의롭다고 주장하며 악인의 결국은 심판이라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합니다. 욥은 과거 자신이 누렸던 존경과 복된 삶을 회상하고, 현재는 젊은이들에게도 멸시받고, 고통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 되었다고 처지를 한탄합니다.



목요일(욥 31~34장) 욥은 자기의 의로움과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는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이후로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과 친구들 모두를 비판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게 본 것은 잘못이며,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의 하나님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요일(욥 35~38장)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과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공의와 교육적 고난에 대해 말하는데, 고난은 징계이자 교훈의 도구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질문들을 쏟아내며 창조의 신비에 대해 묻습니다.



토요일(욥 39~42장)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야생 동물들의 삶과 본성을 예로 들며, 욥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알거나 통제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욥의 무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지혜와 통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와 미약함을 고백하며 잠잠해집니다. 이후로 욥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은 욥을 두 배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자녀와 재산을 회복하고, 장수하며 평안히 삶을 마칩니다.

주 일(시 119, 137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죄를 피하게 하며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들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의 심정을 담았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울었고, 포로민들은 노래를 강요받지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에돔 사람들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보복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 합심기도 :**

1.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말씀따라 살게 하소서
2. 가정과 자녀를 지키시고 문빗장을 견고히 하소서
3. 겨울 같은 시간 속에서도 회복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302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부목사)